한국경제가 선진국에 진입했으나, 노동시장에서 그 혜택은 1차 노동시장에 들어 있는 사람들에게만 집중되고 2차 노동시장에 속해 있는 사람들은 이런 혜택에서 소외되어 있다. 노동시장의 4대 격차(사업체 규모별, 성별, 고용형태(정규직 대 비정규직)별, 공식화된 근로자와 비공식적인 자영업자 간)는 구조화되어 좀처럼 좁혀지지 않고 있다. 코로나19를 계기로 하여 디지털 전환은 오히려 노동시장의 구조적 격차를 벌리고 있다는 진단이 우세하다. 전환적 휴먼뉴딜을 통해서 양극화된 노동시장을 포용적 고용시스템으로 전환하는 노력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개혁하는 작업이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장소정보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24 **한국프레스센터 20층 내셔널프레스클럽**
TEL. 02-2001-7114

생중계 채널 홈페이지 YouTube

*** 본 포럼은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홈페이지 및 유튜브(YouTube)를 통해 생중계됩니다.**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홈페이지(www.nrc.re.kr)
- 유튜브(www.youtube.com 접속 후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채널 검색)

포럼 참석 신청
김윤희 전문연구원 (한국행정연구원 세종국가리더십센터)
전화 : 02-2007-0636 이메일 : yunheek@kipa.re.kr

제34차 세종국가리더십포럼

노동시장의 격차 축소와 포용



일시 2021. 9. 24.(금), 15:00~17:00

장소 한국프레스센터 20층 내셔널프레스클럽

주최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세종국가리더십위원회

주관 경제·인문사회연구회 국책연구전략센터, 한국행정연구원 세종국가리더십센터

경제·인문사회연구회 National Research Council for Economics,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
한국행정연구원 Korea Institute of Public Administration

모시는 글

문재인정부가 집권 5년차에 접어들었습니다. 국민의 삶이 고르게 나아지고 '함께 잘 사는 나라', '혁신적 포용국가'로 나아가기 위해 공공리더십과 정책역량을 통합적으로 갖춘 고위공직자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입니다.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국무총리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는 26개 국책 연구기관이 참여하는 **세종국가리더십위원회**를 발족했습니다. 그리고 중점 사업의 하나로 주요 정책현안에 관한 숙의의 장을 마련하고, 혁신과 포용의 공공리더십을 확산하고자 **세종국가리더십포럼**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2018년 9월부터 개최된 세종국가리더십포럼은 오늘날 고위 정책결정자들이 갖추어야 할 역량이 무엇이며, 그 안에서 리더십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세종국가리더십포럼은 2021년도에도 매달 각 분야의 리더십 최고 권위자를 모시고 코리아 르네상스를 향한 한국형 공공리더십을 성찰하고자 합니다.

이번 달에는 배규식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상임위원을 모시고 "노동시장의 격차 축소와 포용"이라는 주제로 제34차 세종국가리더십포럼을 엽니다. 이를 통해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국정관리 최고 책임자들이 가져야 하는 우리 시대 공공리더십의 규범과 이상을 그려보고자 합니다.

부디 참석하시어 자리를 빛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 9월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 정 해 구

세종국가리더십위원회 위원장 최 상 한

세부일정

시간		내 용
		사회 : 이태수 원장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5:00-15:10	환영사	정해구 이사장 (경제·인문사회연구회)
15:10-16:10	발 표	배규식 상임위원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노동시장의 격차 축소와 포용**
16:10-17:00	Q & A	참여자 전체 Q&A

※ 본 포럼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산 방지 및 예방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의 일환으로 **필수 인원**만 모시고 개최합니다.

세종국가리더십포럼 추후 일정

차수	일시	연사 및 주제	장소
제35차	2021. 10. 27.(수) 15:00-17:00	안병진 교수 (경희대학교 미래문명원) - 바이든 시대의 미국 정치와 사회	세종국책 연구단지

※ 추후 일정은 기관사정에 의해 변경 가능합니다.